

사회적 자본 실태 진단과 사회통합¹⁾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Capital and Its
Implications for Social Cohesion

곽윤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을 크게 저해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은 사회통합의 한 영역으로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진행되어 오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소별로, 그리고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별로 사회적 자본 실태를 진단하고, 사회적 자본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사회적 자본은 종종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제로 여겨진다(황선영, 어유경, 김순은, 2019, p. 33). Fukuyama(1995)는 한국이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극빈곤에서 탈피하고 민주

주의를 안착시켰지만, 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 시스템은 약화되고 갈등이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였음을 지적하며,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일찍이 언급하였다. 이후 사회적 자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와 투자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음에도 현재 한국의 사회적 자

1) 이 글은 김문길 등(발간 예정)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의 제4장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본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국가 중 29위로 매우 낮은 순위에 머무르고 있다(장후석, 고승연, 2014).

최근 사회적 자본은 사회통합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빠져서는 안 될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김태준 외, 2010; 박상필, 2000). 사회적 자본은 공익을 추구하며,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Putnam, 2001). 또한 사회적 자본은 갈등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상호 존중 및 신뢰, 상호 의존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갈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장용석, 정장훈, 조문석, 2009, p. 47). 특히 사회적 자본 중 신뢰는 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의 투자와 저축을 증가시켜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상승과 생산성 증진을 가져오는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Zak & Knack, 2001). 현재 한국은 저 성장과 양극화로 인해 사회통합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통합 영역에서 사회적 자본은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였다(황선영 외, 2019; Portes, 1998).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소별로,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사회적 자본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향후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회

통합 정책 영향평가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다. 이 조사에서 만 19~75세 이하의 성인 남녀 3889명이 최종 응답하였다.

2. 사회적 자본의 실태 진단

사회적 자본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대표적인 학자 부르디외(Bourdieu, 1986, p. 248)는 사회적 자본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 면식이나 인식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다'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정의는 집단으로부터 사회 구성원이 이용 가능한 기회와 이점 등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Bhandari & Yasunobu, 2009). 퍼트남(Putnam, 1993, p. 167)은 사회적 자본을 '조정된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 조직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또 다른 학자인 콜먼(Coleman, 1990, p. 302)은 사회적 자본을 '단일한 실재(a single entity)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한 단면과 그 구조 안에 있는 개인의 특정 행동들을 촉진하는 두 가지 실재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자본 이론 확립에 크게 기여한 후쿠야마(Fukuyama, 1995, p. 10)는 사회적 자본을 '사람들이 집단과 조직에서 공통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즉 '집단 구성원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일련의 비공식적 규범 및 가치의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가.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소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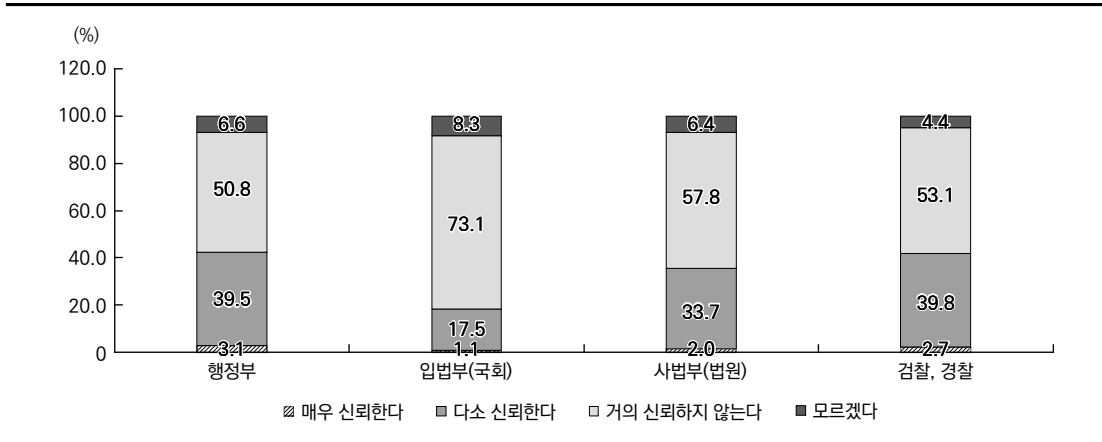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소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의 실태를 진단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만큼이나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소에 대해서는 학자 간의 이견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우선 부르디외(Bourdieu, 1986)는 사회적 자본을 계급 간의 갈등으로 보고 ㄱ) 행위자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소유한 정도, ㄴ) 집단의 공통된 품질보다 행위자 간의 관계의 전체성(totality)에 의해 생성되는 자원들의 양, ㄷ) 이러한 자원들의 질을 하위 요소로 보았다. 콜만(Coleman, 1990)은 호혜성(신뢰), 정보 채널과 흐름, 제재에 의해 시행되는 규범을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소로 규정하였다. 후쿠야마(Fukuyama, 1995)의 경우 개인 간의 신뢰, 호혜성, 공유된 규범 및 이해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의 질을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로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위의 학자 및 다수의 학자들이 정의한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소는 사회적 관계 혹은 네트워크(가족, 친구, 지역사회 및 자원 활동 조직), 호혜의 원칙(공유된 규범, 가치 및 행동), 신뢰(타인 및 기관), 그리고 참여 등이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Bhandari & Yasunobu, 2009). 이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사회적 자본이 크게 참여, 신뢰, 네트워크라는 3가지 핵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1) 신뢰

신뢰는 사회적 자본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결과로 간주된다(Putnam, 1993). 일반적으로 신뢰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믿음을 의미한다(Putnam, 1993). 신뢰는 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공동체 내 신뢰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협력의 가능성은 높아진다(한상미, 2007). Uslaner(2002)에 따르면 신뢰는 '타인에 대한 신뢰'와 '공적 신뢰'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친구, 가족 및 낯선 타인들을 포함한 신뢰를 의미하고, 후자는 공공기관이나 제도 등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칭한다. Coleman(1988)의 경우 신뢰를 사적인 관계에서의 신뢰, 낯선 이와 신뢰,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신뢰의 유형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된 특성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의 신뢰로 나누었다는 점이다(김기동, 이정희, 2017, p. 13).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신뢰의 유형을 공적 신뢰, 사람(타인) 신뢰, 그리고 사회 신뢰로 나눠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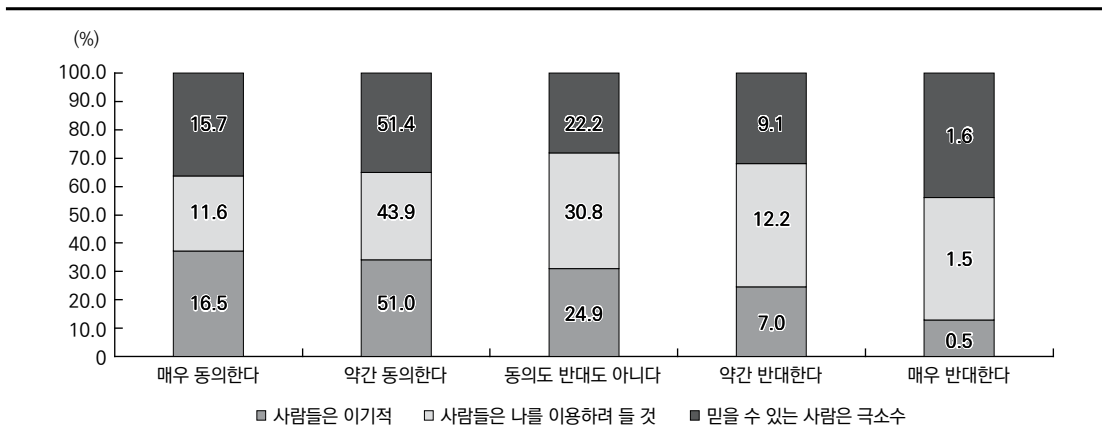
우선 공적 신뢰에서는 '행정부(청와대,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등)',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 '검찰·경찰'의 신뢰를 묻는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림 1]에 따르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검찰·경찰을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입법부(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행정부(청와대,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등)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다

그림 1. 공적 신뢰에 대한 인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2. 사람(타인) 신뢰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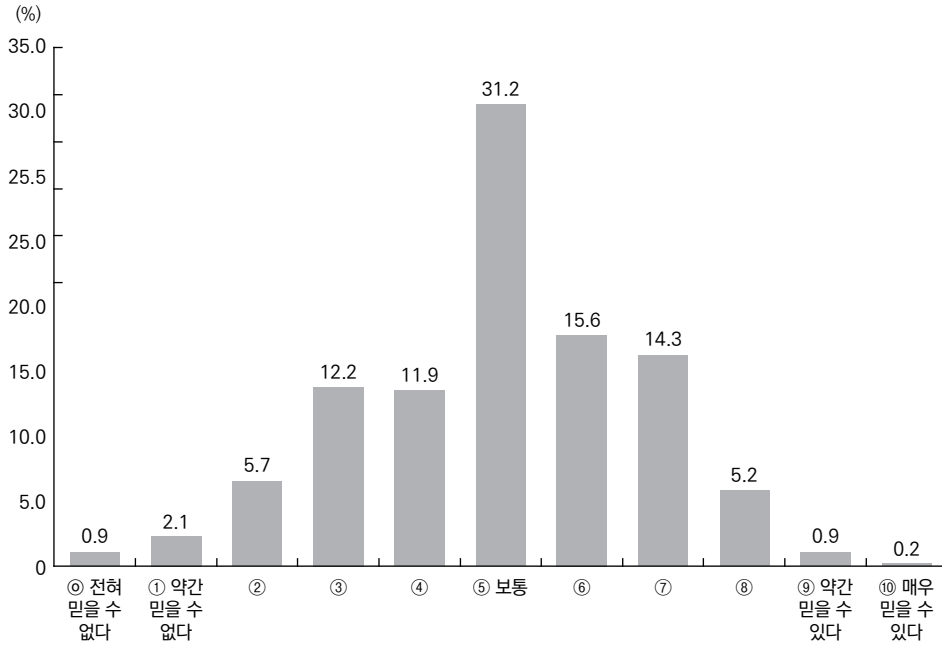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1). 마지막으로 행정부(청와대,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등)와 검찰·경찰을 ‘다소 신뢰한다’와 ‘매우 신뢰한다’에 대한 응답은 거의 비슷하게 높았다.

다음으로 사람(타인) 신뢰에 대해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대개 이기

적이다’,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문항을 선정하였다. 다음과 같은 3가지 문항에 대해 ‘약간 동의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라는 응답이

그림 3. 사회 신뢰에 대한 인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음을 차지하였다(그림 2).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타인) 신뢰는 다소 낮은 것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들 중 약 3분의 1은 '보통'이라고 답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그림 3). 또한 '약간 믿을 수 있다'에서 '매우 믿을 수 있다'가 '약간 믿을 수 없다'에서 '전혀 믿을 수 없다'보다 근소한 차이로 약간 더 높았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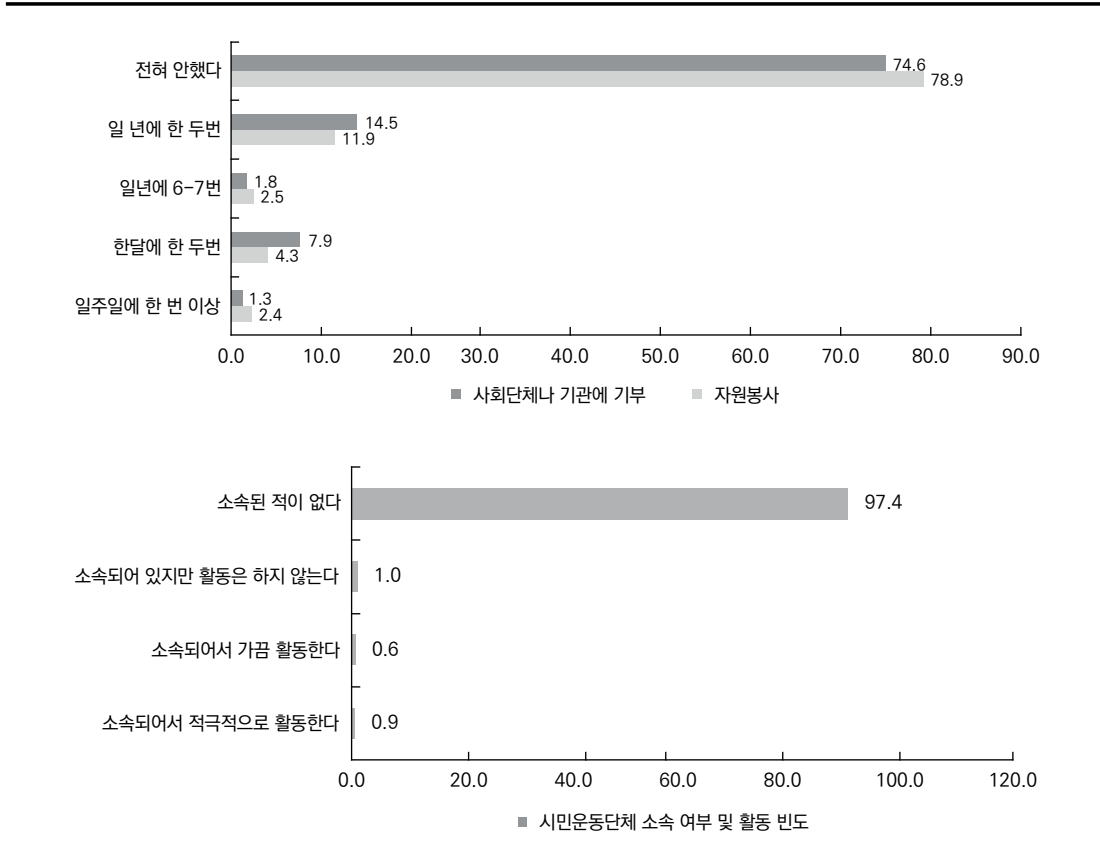
2) 참여

참여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사회적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결사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조권중, 2010, p. 17). Putnam (1995)은 참여를 시민참여(civic engagement)와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시민참여란 '가족 혹은 친한 친구들 외의 다른 이들과 관련된 사회의 환경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평범한 시민들에 의한 활동'을 말한다(Alder & Goggin, 2005, p. 241). 정치참여는 학자마다 범위 설정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시민이 정치 엘리트의 충원이나 공공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Bennett & Bennett, 1986, pp. 160-162). 이

그림 4. 시민참여율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연구에서는 퍼트넘(Putnam)이 제시한 신뢰의 유형화를 바탕으로 시민참여, 정치참여, 그리고 정치집단참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시민참여로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과 동시에 '시민운동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소속되어 있으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다음과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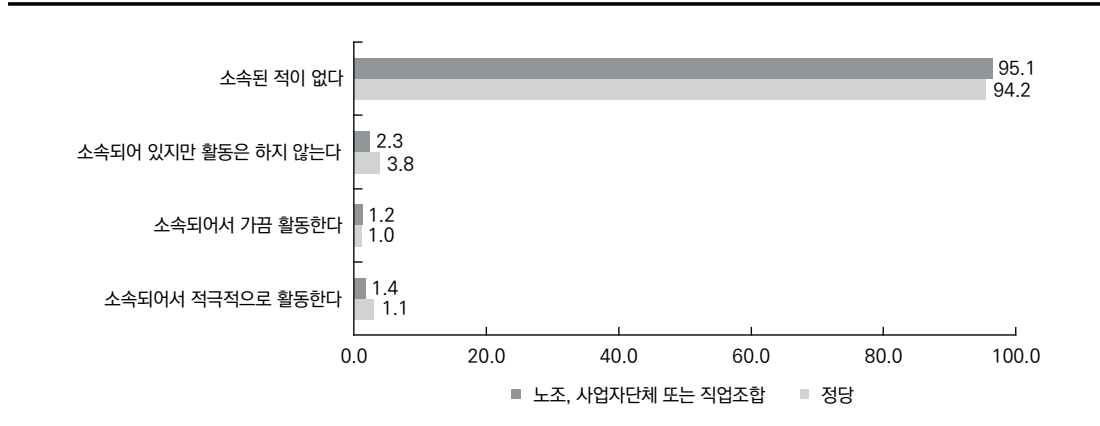
은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집단참여를 묻는 문항으로 '정당', 그리고 '노조,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소속 여부 및 활동 빈도를 묻는 문항을 선택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을 살펴본 결과 해당 집단에 소속된 적이 없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치참여를 보여 주는 선거 참여의 경우

그림 5. 정치집단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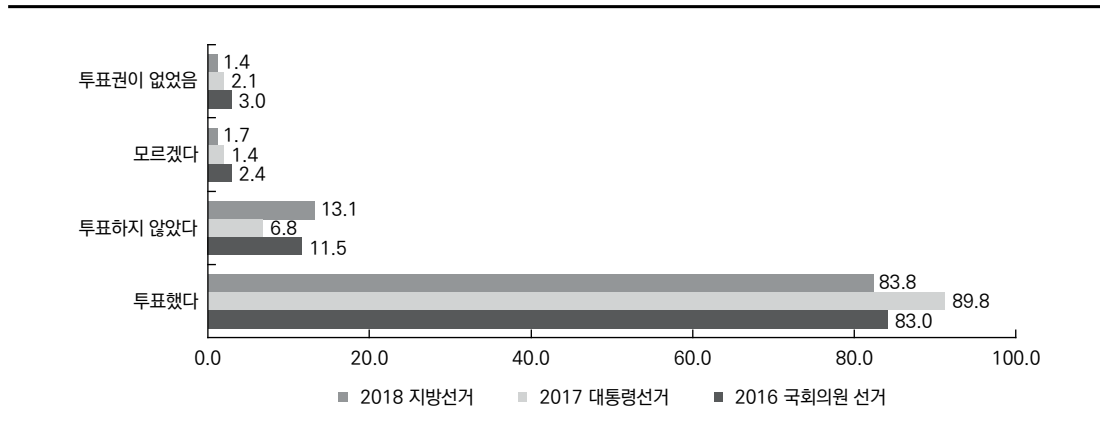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6. 정치참여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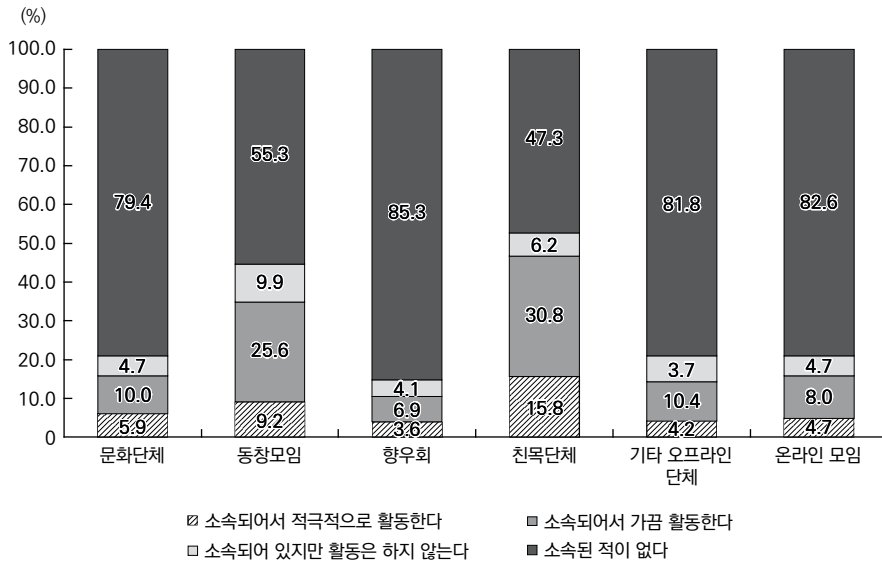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투표 참여 여부에 대해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질문에 대해 대다수의 응답자가 지난 선거에서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비공식적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이 개인 간, 개인과 집단 간, 집단 간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전제로 한다.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네트

그림 7.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대한 참여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워크를 형성하게 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사회 구조를 형성하게 해 준다(박희봉, 전지용, 2008; 이형하, 2014). Portes(1998)에 따르면 네트워크는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가용 자료를 바탕으로 비공식적 네트워크만을 살펴보았다.

[그림 7]에 나타나듯 ‘스포츠, 취미, 레저 모임 등 문화단체’, ‘동창모임’, ‘향우회’, ‘친목단체’, ‘기타 오프라인 모임이나 단체’, 그리고 ‘SNS 등 온라인 모임(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소속되어 있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대한 참여율이 상

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친목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비율이 46.6%로 가장 높았고, 동창모임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비율이 34.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문화단체, 향우회, 기타 오프라인 단체, SNS 등 온라인 모임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표 4>와 같다.

1) 신뢰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

위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우선 공적 신뢰의 경우 연령대 및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층(만 19~34세), 소득계층을 중간층이라고 여기는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공적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 신뢰에서는 교육 수준, 그리고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가 드러났다. 다시 말하면 대졸 이상, 중간층의 소득계층이

비교 집단보다 사회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람(타인) 신뢰에서는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신뢰에서 경제활동 상태가 아니라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나 주관적 소득계층이 중상층(상층)이라고 여길수록 공적 신뢰 및 사회 신뢰, 즉 공적 영역에 대한 신뢰가 강하게 나타났고, 하층·중하층일수록 사람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뢰의 차이

(단위: 점)

구분	분류	공적 신뢰			사회 신뢰			사람(타인) 신뢰		
		평균	표준편차	T(F)/P	평균	표준편차	T(F)/P	평균	표준편차	T(F)/P
성별	남성	1.39	.40	1.539 (.124)	4.96	1.768	.974 (.330)	3.6572	.71963	.388 (.698)
	여성	1.41	.41		5.01	1.729		3.6660	.69307	
연령대	청년층(19~34세)	1.43	.44	3.723 (.024)	5.00	1.740	.124 (.884)	3.6297	.72584	1.562 (.210)
	중장년층(35~64세)	1.39	.40		4.97	1.764		3.6766	.70098	
	노년층(65세 이상)	1.3928	.39		5.00	1.703		3.6540	.6946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3736	.37548	2.538 (.079)	4.98	1.673	6.389 (.002)	3.6592	.69481	.005 (.995)
	고졸	1.3942	.42074		4.88	1.782		3.6615	.69399	
	대졸 이상	1.4144	.40278		5.10	1.741		3.6625	.72401	
배우자 유무	무배우	1.4089	.42235	1.110 (.267)	4.92	1.746	-1.819 (.069)	3.6791	.69942	1.177 (.239)
	유배우	1.3934	.39628		5.02	1.750		3.6514	.71058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1.3854	.39468	5.397 (.001)	4.71	1.770	10.196 (.000)	3.7642	.68758	21.605 (.000)
	중하층	1.3690	.38448		4.89	1.706		3.7451	.70455	
	중간층	1.4258	.41779		5.13	1.738		3.5748	.70435	
	중상층(상층)	1.4199	.46240		5.11	1.943		3.5359	.68400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021	.40102	1.061 (.386)	5.08	1.700	1.201 (.298)	3.6419	.71631	1.041 (.400)
	임시직 임금근로자	1.4035	.38545		4.93	1.679		3.7124	.70562	
	일용직 임금근로자	1.4024	.41626		4.92	1.412		3.7170	.61686	
	고용주	1.3069	.41241		4.78	1.833		3.5944	.82131	
	자영업자	1.3805	.39388		4.95	1.846		3.6782	.68962	
	무급가족종사자	1.3851	.37777		4.89	1.681		3.5798	.68679	
	실업자	1.4335	.45972		4.73	1.811		3.7387	.77550	
	비경제활동인구	1.4140	.42306		4.97	1.763		3.6551	.70464	

주: 1) *p<.05, **p<.01, ***p<.001.

2)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다.

3) 실업자는 2019년 5월 31일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 중인 경우에 해당 되는 자를 포함한다.

4)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부, 학생, 군복무 등을 포함한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타인) 신뢰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본인이 남들보다 소득이 적다고 여길수록 공적 영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참여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2). 우선 시민참여는 연령대,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주관적 소득계

층,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중장년층(만 35~64세), 대졸 이상, 배우자가 있고 중상층(상층) 소득계층이다. 본인이 고용주인 경우 비교 집단보다 시민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치집단참여는 성별, 연령대,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및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남성, 중장년층(만 35~64세), 대졸, 배우자가 있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의 차이

(단위: 점)

구분	분류	시민참여			정치집단참여			정치참여		
		평균	표준편차	T(F)/P	평균	표준편차	T(F)/P	평균	표준편차	T(F)/P
성별	남성	1.6369	.56471	.103 (.918)	1.1186	.40422	-5.208 (.000)	2.6395	14.79461	-.541 (.588)
	여성	1.6387	.55352		1.0586	.30894		2.3899	13.84905	
연령대	청년층(19~34세)	1.5772	.46186	22.983 (.000)	1.0635	.32804	7.349 (.001)	9.7920	27.33284	182.827 (.000)
	중장년층(35~64세)	1.6858	.59556		1.1068	.38006		.0832	.23939	
	노년층(65세 이상)	1.5408	.53437		1.0581	.33205		.0310	.1574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224	.50020	32.638 (.000)	1.0500	.30461	4.901 (.007)	.3448	5.42189	65.183 (.000)
	고졸	1.6079	.51917		1.0931	.38587		5.6069	21.35466	
	대졸 이상	1.7154	.60772		1.1010	.35740		.3450	3.66912	
배우자 유무	유배우	1.6795	.59404	-6.512 (.000)	1.1000	.37016	-2.560 (.011)	.1216	2.11774	10.697 (.000)
	무배우	1.5652	.48424		1.0698	.34532		6.7101	23.02284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1.5174	.51578	25.888 (.000)	1.0612	.32366	2.0408 (.105)	2.0722	12.77243	3.913 (.008)
	중하층	1.5937	.52267		1.0824	.34240		1.6710	11.07382	
	중간층	1.6877	.57494		1.1010	.38860		3.1535	16.36092	
	중상층(상층)	1.8437	.66829		1.1077	.34895		4.2190	19.05262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6656	.56644	3.188 (.002)	1.1142	.37867	2.678 (.009)	.7139	6.57938	20.684 (.000)
	임시직 임금근로자	1.5824	.48583		1.0740	.38885		5.6564	21.24598	
	일용직 임금근로자	1.5409	.49645		1.1132	.43251		3.2453	16.72961	
	고용주	1.7000	.53397		1.1083	.32011		.0944	.25372	
	자영업자	1.6605	.58815		1.0984	.36640		.0726	.22449	
	무급가족종사자	1.6359	.55742		1.0630	.30914		.4664	4.53686	
	실업자	1.4773	.36744		1.0280	.14624		2.5753	14.05187	
	비경제활동인구	1.6238	.56448		1.0598	.34327		6.4502	22.99926	

주: 1) *p<.05, **p<.01, ***p<.001.

2)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다.

3) 실업자는 2019년 5월 31일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 중인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4)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부, 학생, 군복무 등을 포함한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고 상용직 임금근로자인 경우 비교 집단보다 정치집단참여가 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참여는 연령대,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주관적 소득 계층 및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청년층(만 19~34세), 고졸, 배우자가 없고 중상층(상층) 소득계층, 비경제활동인구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정치참여가 높았다. 주목할 점은 청년층에서 정치참여, 즉 선거에 참여했다고 답한 비

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항간의 편견을 무너뜨리는 결과이다.

3) 네트워크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표 3). 남성이 여성보다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소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네트워크의 차이

(단위: 점)

구분	분류	비공식적 네트워크		
		평균	표준 편차	T(F)/P
성별	여성	1.4865	.51488	9.863 (.000)
	남성	1.6671	.62283	
연령대	청년층(19~34세)	1.5332	.55400	30.429 (.000)
	중장년층(35~64세)	1.6306	.60142	
	노년층(65세 이상)	1.4328	.4879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3761	.44967	56.556 (.000)
	고졸	1.5850	.59080	
	대졸 이상	1.6547	.59541	
배우자 유무	무배우	1.4846	.54977	7.819 (.000)
	유배우	1.6316	.5887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397	.48639	59.111 (.000)
	중하층	1.5333	.53697	
	중간층	1.6637	.60621	
	중상층(상층)	1.8014	.6180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6372	.57926	18.743 (.000)
	임시직 임금근로자	1.5018	.58091	
	일용직 임금근로자	1.4230	.47929	
	고용주	1.8667	.59723	
	자영업자	1.6834	.59660	
	무급가족종사자	1.4888	.51518	
	실업자	1.4187	.45772	
	비경제활동인구	1.4577	.55606	

주: 1) *p<.05, **p<.01, ***p<.001.

2)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다.

3) 실업자는 2019년 5월 31일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 중인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4)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부, 학생, 군복무 등을 포함한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속되는 경우가 많았고 활동 참여가 높았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중장년층(만 35~54세) 집단이 비공식적 네트워크 소속 및 참여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만 19~34세), 만 65세 이상이 그 뒤를 이었다.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비공식적 네트워크 소속 및 참여 활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보다 비공식적 네트워크 소속 및 참여 활동이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본인을 중상층(상층)이라고 여기는 집단이 비공식적 네트워크 소속 및 활동 빈도가 높았다. 중간층, 중하층, 하층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는 고용주 집단이 비공식적 네트워크 소속 및 활동 참여가 가장 높았고, 실업자 집단이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가장 저조한 것

으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자본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

가. 사회적 자본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상관관계

‘사회통합 인식’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사회적 자본과 사회통합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사회통합 인식과 공적 신뢰, 사회 신뢰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사회통합 인식과 사람(타인) 신뢰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나. 사회적 자본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번에는 사회적 자본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

표 4.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구분	사회 통합 인식	공적 신뢰	사람(타인) 신뢰	사회 신뢰	시민 참여	정치 집단 참여	정치 참여	비공식적 네트워크
사회통합 인식	1.000							
공적 신뢰	.209**	1.000						
사람(타인) 신뢰	-.171**	-.105**	1.000					
사회 신뢰	.500**	.316**	-.192**	1.000				
시민참여	-.020	.051**	-.045**	.007	1.000			
정치집단참여	-.024	-.026	.021	-.027	.243**	1.000		
정치참여	.028	.075**	-.032*	.047**	-.005	-.022	1.000	
비공식적 네트워크	-.014	-.021	-.080**	.036*	.231**	.391**	-.057**	1.000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사회통합 인식을 종속 변수로 하고, 신뢰, 참여, 네트워크를 독립 변수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주관적 소득계층,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표 5). 독립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적 신뢰와 사회 신뢰 모두 사회통합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람(타인) 신뢰는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 신뢰가 사회통합 국민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사회 신뢰가 사회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 신뢰를 통해 한 사회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 및 축적이 용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심규선, 2018, p. 54). 반면 사람(타인)에 대한 신뢰는 사회통합 국민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서 신뢰는 가족, 친구 등 동질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생성되는 연대감과 일체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타인 특히 낯선 집단에 대한 신뢰감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Fukuyama, 1995; 최상진, 김기범, 강오순, 김지영, 김양하, 2005). 통제 변수 중에는 유일하게 성별이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

표 5. 회귀분석 결과 요약: 사회적 자본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변수		종속 변수-사회통합 인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β		
	(상수)	2.617	.213		12.273***	.000
신뢰	공적 신뢰	.216	.062	.052	3.502***	.000
	사람(타인) 신뢰	-.185	.035	-.077	-5.340***	.000
	사회 신뢰	.455	.014	.471	31.392***	.000
참여	시민 참여	-.068	.044	-.023	-1.532	.126
	정치집단참여	.042	.072	.009	.578	.563
	정치참여	.000	.002	-.004	-.237	.813
네트워크	비공식적 네트워크	-.063	.047	-.022	-1.353	.176
통제 변수	성별	-.119	.049	-.035	-2.413*	.016
	연령	-.022	.048	-.008	-.459	.646
	교육 수준	-.071	.040	-.031	-1.758	.079
	배우자 유무	.009	.055	.003	.168	.867
	주관적 소득계층	.004	.032	.002	.137	.891
	경제활동 참여 상태	.002	.009	.004	.266	.790
R2 (수정된 R2)		.262 (.259)				
F (p)		103.042***(.000)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남자일수록 사회 통합 인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4. 나가며

이 글에서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 중 신뢰가 사회통합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주목하여 여기서는 신뢰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법·제도 및 사회 시스템의 권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분석 결과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단 약간 더 높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과 더불어 공적 영역 신뢰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장후석, 고승연, 2014). 따라서 우리 사회의 사회 신뢰 및 공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한국 사회의 신뢰가 높지 않은 원인으로 급격한 산업화 및 현대화 과정으로 인한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꼽은 만큼(Knack & Keefer, 1997; Uslaner, 2002) 취약계층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공정한 사법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World Bank, 2013). 또한 기존 연구에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소인 신뢰가 향상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위해 건전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고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원종옥 외, 2008).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요인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차 확인하고, 장후석, 고승연(2014)이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주장한 만큼 이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적 영역 관계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투명성 등이 뒷받침될 때 공적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신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타인)에 대한 신뢰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신뢰는 가족, 친구 등 동질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생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타인 특히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감은 더욱 낮은 경향이 있다(Fukuyama, 1995). 이러한 사람(타인) 신뢰 정도는 비공식적 네트워크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 듯 보인다. 그 이유는 이 연구 결과 동창 모임과 같은 모임에는 활발하게 참여하는데, 생판 모르는 낯선 사람들과의 신뢰 및 비공식적 네트워크망은 취약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 범위가 안면이 있는 이들에 국한되는 것을 넘어서려면 공공성이 높은 사회 및 시민단체 가입 및 활동 빈도를 높이도록 적극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발적인 시민사회를 육성하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적 연결망이 강화되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축적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이장원 외, 2008). ■

참고문헌

- 김기동, 이정희. (2017). 한국 시민들의 신뢰수준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연구. *아태연구*, 24(2), 5-39.
- 김문길, 김미곤, 정해식, 곽윤경, 우선희, 이정윤. (발간 예정).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준, 원종욱, 방하남, 강성진, 이귀진, 윤문구, ... 이우진. (2010). 사회적 자본 효과 분석 및 체계적 지원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0-25-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상필. (2000). 이익집단 갈등과 사회자본: 경실련의 한약분쟁 조정 사례연구. *한국행정학보*, 34(2), 121-138.
- 박희봉, 전지용. (2008). 가족사회자본이 집단가치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현대사회와 행정*, 제18권 제3호. pp. 51-76.
- 심규선. (2018). 다문화 사회통합에서 상호접촉의 의미 - 신뢰와 문화다양성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장원, 강명세, 고동현, 김형기, 박준식, 김호기, 최성수. (2008). 경제사회발전모델의 사회적 합의 구축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01-01*. 한국노동연구원
- 이형하. (2014). 한국인의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 관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19(11), 193-202.
- 원종욱, 남상호, 홍영란, 방하남, 정영호, 현영섭, ... 이철희. (2008).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1차년도) -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용석, 정장훈, 조문석. (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갈등: 사회적 자본의 다면적 속성에 대한 재조명. *조사연구*, 10(2), 45-69.
- 장후석, 고승연. (2014).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 공적신뢰 회복을 위한 국가시스템 개조가 필요하다" *경제주평*, 14-21.
- 조권중. (2010). *서울의 사회적 자본: 현황과 정책과제*. SDI 정책리포트, 70, 1-24.
- 최상진, 김기범, 강오순, 김지영, 김양하. (2005). *한국문화에서 대인관계 신뢰·불신의 기반과 심리적 기능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 1-20.
- 한상미. (2007).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자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황선영, 어유경, 김순은. (2019).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사회적 배제가 인지적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세대 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3(2), 31-61.
- Adler, R. P., Goggin, J. (2005). What Do We Mean By "Civic engagement"? *Journal of Transformative Education* 3(3), 236-253.
- Bennett, S. E. & Bennett, L. L. M. (1986). Political particip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157-204.
- Bhandari, H., & Yasunobu, K. (2009). What is social capital?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concept.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37(3), 480-510.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241-258.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120.
-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 Free Press.
- Knack, S., & Keefer, P.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1251-1288.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Origins and applic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Putnam, R. D. (2001). Social capital. measurement and consequences. *Canadian Journal of Policy Research*, 2(1), 41-51.
- Uslaner, T. R. (2002). The moral foundation of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rld Bank. (2013). Inclusion matters - the foundation for shared prosperity.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Zak, P. J., & Knack, S. (2001). Trust and growth. *The Economic Journal*, 111(470), 295-321.